



2019 제1회 특허심판위원회 심판결과집계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남영택 사무관 이태원	042-481-5182 042-481-596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2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25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공익변리사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법률구조 지속 증가”

-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0건 지원 승소율 70%에 달해 -

사례 :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중 소기업 B사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였지만, B사는 오히려 A씨의 상표권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가 취소되었다. 이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으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상표를 이전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A씨의 상표권을 지켰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작년에 영세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12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허 법률구조 건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이다. 또한, 승소율도 지난 3년 동안 76.8%에 달하고 있어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심판·심결 취소소송 연도별 대리건수>

구 분			'15년	'16년	'17년
종 류	심 판		43	95	87
	심 결 취 소 소 송	특 허 법 원	7	10	22
		대 법 원	3	4	11
	계		53	109	120

사회적약자의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약자의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분야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심판.소송 대리를 비롯하여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000여건 중 특허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은 760여건이며 그 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수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약자 지재권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006-43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이태원(☎ 042-481-59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